

인/터/뷰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초대총재

“사랑 전하는 진정한 친구 되겠다”

‘준비된 영부인’ 지원하는 봉사기구, 투명한 운영 다짐



〈사진 왼쪽부터〉 박영숙

회 이후 한달 반의 고사 끝에 최근 총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운동가, 여성운동가, 신앙인, 소외된 사람을 돕는 지도자로 ‘준비된 영부인’의 자격을 두루 갖춘 이회호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과 차별화되는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박영숙 총재는 매우 강하게 제안해왔다.

“국민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손길이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 내부의 체계로는 아무래도 제약이 따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밖에서 선생님을 지원하는 봉사기구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IMF를 이겨내기 위한 민간의 활동들이 활발한데 사정들이 다들 어렵잖아요. 영부인이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여론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부인의 활동’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만큼 박 총재는 투명하고, 현신적이고 열려 있는 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몇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역대 영부인 활동에 부작용이 생긴 건 재단이라는 구조가 문제였지요. 재단은 만들지 않되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또 사랑의 친구들은 도움의 연결체계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 받아야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서로 연결해주는 일이지요. 돈이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안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회원 회비로

충당하고 모금한 기금에서는 한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내부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두고 재정 운영이 투명하도록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해 나갈 겁니다.”

사랑의 친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네가지 주제이다. 결식아동, 실직 여가장, 노숙자, 장애인 복지가 그것. 주제마다 별도의 후원구좌와 모금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인데 우선 결식아동을 위한 후원구좌가 개설됐고 첫번째 행사도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모금 바자회로 계획됐다.

기존의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영부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제약도 많다고 말하는 박영숙 총재는 “공정하게 해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박영숙 총재는 ‘사랑의 친구들’이 ‘준비된 영부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면 초대총재로서 자신이 부각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김효선 편집부장)

“사랑의 친구들 출범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책임을 맡고 싶지는 않아서 누군가에게 떠넘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달 반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우리사회가 당면한 급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라면 내 일을 좀 줄이고라도 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대통령 부인 이회호 여사가 명예총재로 있는 사랑의 친구들 출범에 산파역이었던 박영숙 한국사회환경정책연구소 소장에게 초대 총재가 맡겨지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8월 초 창립 총

박영숙 총재는 58년 YWCA 대학생부 간사로 재직할 때 이회호 여사를 만났다. 당시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지도자였던 이회호 여사는 YWCA 초대 실무총무로 4년간 활약했다. 이 여사의 사직으로 박영숙 씨는 당시 32세로 최연소 총무가 되어 이회호 여사의 뒤를 잇는 여성지도자로 활약했다. 그후 명동사건 등 민주화 회복 운동에 참여하고 평민당 부총재로 활약하는 등 이 여사와는 여성운동과 정치, 인권운동을 위한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해온 오랜 친구로서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